【특집 논문】

환경 미학과 썩음의 미학
- 자연미 체험의 양면성은 극복될 수 있는가? -*

김 성 진(한림대)

【주요어】 환경윤리학, 환경미학, 생태학적 전환, 자연미 체험, 긍정미학, H. D. 소로우, A. 레오폴드, H. 롤스턴 III, 생명가치, 늪의 미학, 썩음의 미학

【요약문】 환경미학의 고찰 대상은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이 아니며 인간에 의해 묘사된 자연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오직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체험과 평가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학과 구별된다. 또한 자연미의 감상과 미학적 평가에는 긍정적 평가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 평가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 즉 긍정미학(positive aesthetics)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도 예술론적 미학이나 비평이론과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는 평가만이 허용될 뿐, 추하거나 혐오스럽다는 평가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가?

환경미학의 이런 입장은 기존의 자연관이 달라져야 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기존의 자연관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자연 체험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 도전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한다. 1) 정당화를 위한 환경미학의 이론적 개념화; 2) 늪과 갯벌의 아름다움 체험의 예증 사례; 3) 늪과 갯벌에 대한 긍정미학의 생태학적 조건.

이러한 검토는 썩음의 미학으로 이어진다. 즉 늪과 갯벌에 대한 긍정미학은 썩음의 생태학적 가치와 함께 썩음의 아름다움 가치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계명대학교 2007. 11. 8. 제488회 목요철학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그 세미나에서 행해진 토론, 그리고 본 학술지 게재논문 심사평에서 주어진 지적들을 반영하여 이 논문을 개선시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I. 20세기 미학의 생태학적 전환과 환경미학

지난 20세기 동안 철학은 세 가지 큰 변화를 겪었다. 하나는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이며, 또 하나는 근대성 비판과 탈 근대주의(postmodernism)이며, 또 하나는 환경론적 전환(environmental turn)이다. 그 중 세 번째 것은 특히 다음의 점에서 볼 때 20세기 인류가 겪은 가장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것이다.

첫째, 그것은 철학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환경 윤리학과 환경미학을 탄생시켰다.

둘째, 그것은 생물학 및 생태학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셋째,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의 제반 학문들에도 영향을 끼쳤다.

넷째, 그것은 개인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태도 및 가치관의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 냈다.

다섯째, 그것은 가장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구의 미래와 인류 생존의 문제를 제기한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상황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생태학적 계몽에 힘입어 환경문학, 환경정책, 환경경영, 환경법학, 환경과 에너지, 환경과 관광, 환경과 산업, 환경과 국제협력, 환경교육, 환경과 예술 등 여러 분야로 파급 효과를 보였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건의와 비판과 저항과 법적 투쟁도 불사하는 시민운동을 촉진시켜 왔다.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의 저변에는 하나의 공통된 물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물음은 인류의 생존 조건과 생활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과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철학적인 문제이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환경윤리학과 환경미학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

에서 이해하려는 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철학은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다루어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20세기 철학의 "환경론적 전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찰함에 어떤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것을 일단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첫째, 과거의 철학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존재로서 이해되어 왔음에 비해, 20세기 철학의 전환은 인간을 문화적 존재이자 동시에 생태학적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차이가 있다. 문화는 원래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인간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서의 자연 개념은 문화와 구별되고 대립되며, 심지어 자연과 문화(문명)는 분명히 반대 개념이었다. 반면에 이제 인간은 문명 이전에도, 그리고 문명을 이루어 낸 이후에도 여전히 생태학적 존재로 머문다는 인간관이 대두된 것이다. 우리 인간도 다른 동식물들과 함께 동일한 지구 생태계 구성원이라는 (또는 구성원에 불과하다는)[1] 인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전제하며, 이 점에서 볼 때 "환경론적 전환"은 곧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urn)을 의미한다.

둘째, 환경윤리학 역시 기존의 전통 윤리학에 일대 전환을 불러

---

1) 알도 레오폴드에게도 인간은 단지 대지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 "He will see land as a community of which he is only a member." Aldo Leopold, "Wherefore Wildlife Ecology?" In : *The River of the Mother of God and other Essays by Aldo Leopold,* ed. Susan L. Flader and J. Baird Callicott, (Madison, WI : Univ. of Wisconsin Press, 1991, pp. 336-7, p. 337. 재인용 :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ed. Joy A. Palme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1) p. 174.

일으켰다. 과거와 달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 윤리가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을 도덕적 행위와 책임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인간 대 자연의 관계도 도덕적 행위와 윤리적 책임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윤리학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그리고 윤리학이 새로운 차원의 과제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2) 이것을 흔히 윤리학의 "환경론적 전환"(environmental turn of ethics)이라고 부른다.3) 여기서 말하는 환경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 또는 '자연 생태계'를 뜻하며, 윤리학의 "환경론적 전환" 역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전제한다. 단지 생태학적 관점의 적용 정도가 얼마나 과격한가에 따라 도덕적 배려와 윤리적 의무의 대상 영역을 달리하는 입장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감각 능력이 있는) 동물의 차원만을 그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또는 모든 생명체를, 또는 무생명체도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를 그 대상 영역으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환경윤리학의 여러 입장들은 '동물권리(해방)론', '생명중심주의', '생태계중심주의', '대자윤리', '지구윤리' 등으로 구별된다.4)

---

2) 이러한 "윤리학의 확대"(the extension of ethics)를 "생태학적 진화 과정"(a process in ecological evolution)의 제3단계로, 그리고 "사회적 진화의 결과"로(a product of social evolution) 규정하는 알도 레오폴드의 해석 참조 : Aldo Leopold, *A Sand County Almanac and Sketches Here and The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238-239, 263.

3) Holmes Rolston III, "Environmental Ethics", in :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ilosophy*, 2nd ed. ed., N. Bunnin and E. P. Tsui-James, Ch. 18. (Oxford : Blackwell Publisching, 2003, pp. 517-530) 517면 이하.

4) 이러한 입장 차이들에 대한 서술과 비교 연구로서 Holmes Rolston III, "Ethics and the Environment : Types of Environmental Ethics", in : Emily Baker and Michael Richardson, eds., *Ethics Applied*, edition 2, ch. 11, (New York: Simon & Shuster, 1999) pp. 407-437. Holmes Rolston III, "Environmental Ethics" in :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ilosophy, 2nd ed., ed., Nicholas Bunnin and E. P. Tsui-James, ch. 18, (Oxford : Blackwell

셋째, 환경미학 역시 환경론적 전환을 거쳐 나타난 미학의 새로운 영역이다. 전통적 미학과 20세기에 대두된 환경미학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예술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논한다.[5] 반면 환경미학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논한다. 화가가 그린 풍경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풍경화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것이 미학의 입장이다. 현존하는 어느 특정 지역의 경치가 풍경화로 묘사된 경우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전통 미학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만 고찰 대상이 될 뿐이다. 전통 미학에서도 인간이 체험하는 자연미 감상이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미학의 독립된 영역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단지 미철학(philosophy of beauty)의 한 부분으로서만 고찰될 수 있었을 뿐이다. 반면에 환경미학은 한편으로는 인간에 의해 직접 체험되는 자연 자체의, 또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전통 미학과 구별된다.[6] 또 다른 한편으로 환경미학은 미학의 생태학적 전환과 함께, 그리고 윤리학의 환경론적 전환과 함께, 또는 그 동반 현상으로 생겨났다는 점에서 전통 미학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Henry David Thoreau, Aldo Leopold, Holmes Rolston III, Eugene C. Hargrove 등과 같은 환경윤리학의 선구자들이 바로 환경미학의 선구자들이었기 때문이다.[7]

Publishing, 2003) pp. 517-530. 김성진, "생태주의와 환경철학", 『환경정책포럼 2006』, 환경부 2006. 12., 85-108.

5) 이 점은 특히 미학을 예술철학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 더욱 그러하다. 환경의 아름다움이 미학의 다른 두 영역인 미철학(philosophy of beauty)과 비평철학에서는 어디까지 그 고찰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조 : 유리오 세판마, 『환경의 아름다움』(김문환 옮김, 신구문화사 2000) 24면 이하, 45면 이하.

6) 환경미학이 전통 미학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작품과 자연환경의 본질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 유리오 세판마, 상게서 52면 이하, 130-175면.

7) 이와 관련하여 아래 IV 이하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환경미학에 집중시켜보자. 그리고 전통 미학과 대비되는 환경미학의 첫 번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환경미학 역시 20세기 철학이 겪은 “환경론적 전환”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 만남에서 일어나는 감성적 체험과 심미적 경험을 고찰한다. 예술작품의 감상을 다루는 전통 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전제한다. 반면에 환경미학은 예술 창작의 매개 없이 직접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찰하며 또 자연환경 안에서 자연과 직접 만나는 인간의 자연 체험을 다룬다. 이 점에서 환경미학은 환경론적 인간관 또는 생태학적 인간관을 전제한다. 과거의 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술적 창작 행위를 전제한다. 따라서 그 주된 관심 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인간의 예술적 창작 행위, 창조된 예술작품, 그리고 그 예술작품의 감상과 평가 또는 비평이다. 여기에서는 자연 자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적 고찰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환경미학은 자연 자체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확인되는 감성적 체험과 심미적 활동 및 그 결과 등을 고찰하며 여기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방법론적 조건 등을 모색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연 자체가 미학적 고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간에 의해 변형된 자연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야생 자연의 구별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야생 자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 본래의 모습일 것이며, 따라서 순수한 야생 자연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자연미 체험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상에 진정한 의미의 야생 자연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순수한 (야생)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인간이 느끼고 체험하는 심미적 경험은 오늘날에 와서는 아쉽게도 매우 희귀한 경험에 속한다. 여기에 비하면 인간의 손이 닿아 변형된 자연에 대한 체험, 심지어 인간에 의해 가공되거나 조작된 자연에 대한 체험은 야생자연 체험에 비교할 때 일종의 대용품이거나 기껏해야 차선책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나 20세기 미학의 환경론적 전환 또는 생태학적 전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세기 환경미학의 관심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아름다움 또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성적 체험의 두 측면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의 미학적 자연체험의 유구한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에 대한 오늘날의 생태학적 이해가 환경미학에 끼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연후에 우리는 오늘날의 환경미학이 썩음의 미학도 그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으며 또 포함 해야만 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II. 자연 체험의 양면성

1. 자연의 선호 대상과 혐오 대상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감성적 체험과 심미적 감수성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여러 문명권들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심지어는 고대문명의 시기를 훨씬 넘어서는 석기시대 원시인들에게서도 확인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에 대한 미적 감수성의 기원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과도 연관되는 특성이며, 그것은 인간 진화의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어 Rockefeller University의 Environmental Bio Medicine 학과 교수였으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René Dubos는 인간 진화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생물학적 연속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오래된 과거가 인간의 본성 속에 아직도 살아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순간마다 분명히 드러난다. . . .

우리는 석기시대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행동양식의 특성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 . . 현대인의 유전적 구조,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은 거의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조상인 구석기 수렵인간의 그것과 동일하다. . . . 인간의 진화가 이루어진 원생적 주거환경과 그에 대한 원시인간의 반응양식은 아직도 인간이 현대의 생활 조건에 적응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거의 모든 기본적 반응양식들을 만들어 간다."[8)]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 환경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원시인들에게도 생존의 일차적 조건이었으며, 따라서 경관이나 지형에 따라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고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불리하고 위험한지를 알아채고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자연물이나 자연 경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선천적 선호"(biophilia) 대상과 "선천적 혐오"(biophobia) 대상으로 분류하는 이론은 매우 흥미롭다.

자연이 아름답다는 데 대해서 대개의 경우 우리는 동의한다. 자연은 아름답다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연의 무엇이 또는 어디가 아름다운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빨갛게 물든 저녁노을?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깨끗하고 한적한 해변의 모래사장? 흰 눈에 덮인 설악산? -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동의한다. 자연은 아름답다고! 그러나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가? 천만에, 그 반대 사례들도 얼마든지 찾아진다. 땅 속의 지렁이나 지네나 바퀴벌레, 소나무를 갉아 먹는 송충이, 사람 피도 빨아 먹는 거머리, 한 번 물리거나 쏘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충들, 숲의 나무들을 병들어 죽게 만드는 다른 여러 가지 곤충들,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나 모기나 쥐 등등 아름답기보다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인 자연물들도 얼마나 많은가? 늪이나 갯벌 같은 습지들도 사실은 오래 동안 대표적인 혐오의 대상이었다.

---

8) René Dubos, "Mere survival is not enough for Man", *Life* (Asia edition), Vol. 49, No. 4, Aug. 17, 1970, p. 27

질척하게 물에 젖어 발이 빠지고 냄새나며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늪, 갯벌, 시궁창 같은 곳들은 애초부터 혐오 대상이고 기피 대상이며 쓸모없는 불모지이고 개발과 발전의 장애물이었다. 반면에 마른 땅과 초원과 숲은 주거와 경작이 가능하며 산업 발전에 이용 가치가 높은 지형으로 평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경치는 사반나 형의 지형이다. 숲으로 둘러싸인 초원지대에 강이나 개울이 흐르는 곳, 아니면 숲과 초원과 호수가 함께 어울려 있는 지형이다. 반면에 가장 혐오하는 지형은 늪, 소택지, 갯벌 같은 습지들이다. 흔히 생물학자나 인류학자나 지리학자들은 사반나(savanna)가 인간에게는 선천적 선호(biophilia) 대상이라면, 늪이나 갯벌은 선천적 혐오(biophobia)[9] 대상이라고 분류한다. 인간은 오랜 세월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경치와 지형에 대해서도 일종의 문화적 본능에 따라 반응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10] 각종 습지들에 대한 혐오심과 고정 관념도 인간의 현실적 자연 체험과 행동 방식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문화적 본능 속에 각인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예를 들면, 물이 고여 항상 질퍽하며 바닥을 알 수 없는 진흙탕, 농사도, 나무심기도, 개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땅, 접근하기 가장 꺼림직 한 곳, 썩는 냄새가 악취를 풍기며, 보기 흉하게 잡초만 자라는 곳, 한 번 들어서면 빠져 나오기조차

---

9) 'biophilia'와 'biophobia' 개념에서 'bio-'는 명사라기보다는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 즉 'biological'의 축약으로서 '생물학적' 또는 '선천적'의 의미로 잡는 것이 앞뒤 문맥과도 정합적이다.

10) G. H. Orians and J. H. Heerwagen, "Evolved Responses to Landscapes" In : Barkow, J. H./Cosmides, L./Tooby, J.(ed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558면. R. S. Ulrich, "Biophilia, Biophobia, and Natural Landscapes" In : Kellert, S. R./Wilson, E. O.(edds.), The Biophilia Hypothesis (Washington DC : Island Press, 1993) 89면.

어려운 곳, 버려진 땅, 아니면 쓰레기 매립지로나 적합한 곳, 어둡고, 음침하고, 더럽고, 만지기 싫고, 징그러운 벌레나 해충이나 피를 빠는 거머리들이 있는 곳, 그래서 문명과 개발과 발전의 명분 아래 가능한 한 빨리 매립하여 쓸모 있는 땅으로 변형시키지 않은 한, 아무 이익도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바로 갯벌이나 늪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녀왔던 생각이다.[11] 심지어 19세기를 대표하는 스웨덴의 생물학자였던 린네(Carolus Linnaeus)에게도 습지 체험은 아름답기보다는 오히려 혐오스러움의 극치였다. 북구 Lapland에서 늪의 진흙 바닥을 걸어서 건너야 했던 그는 자신의 체험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그 다음에는 늪의 감탕흙바닥이 시작되었는데 거의 다 물에 잠긴 상태였다. 이것을 우리는 수 마일이나 걸어서 건너야만 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무릎까지 흙탕 속에 잠기곤 했으니 우리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생각해 보라. . . . Lapland의 이 지역 전체가 대부분 이런 늪지로서, 여기서는 이를 'stygx'라 부른다. 어느 신부님인들 지옥을 여기처럼 묘사하지는 못할 것이니, 지옥도 이보다 더 지긋지긋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어느 시인도 저승의 강 Styx를 이토록 썩어 빠진 곳으로 그려낼 수는 없을 테니, 거기도 이보다 더 썩어 문드러지지는 않았기 때문일세."[12]

습지에 대한 이렇듯 부정적 인식은 습지를 개발 대상 또는 제거 대상으로 몰아갔다. 각종 습지들은 인간에게는 이용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습지란 주거 불가능한 곳, 길이 없으며 통과해서 건너가기도 어려운 곳, 주거지나 경

---

11) "발이 푹푹 빠지고 질척거리는 곳만 갯벌이 아니다. 그건 갯벌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 박용해, 『나는 갯벌을 겪는다』, 한림미디어 2004, 20면.

12) Carolus Linnaeus, *Lachesis Lapponica, or a Tour in Lapland* (1732), transl. by J. E. Smith, 2 vols, (London: White and Cochrane, 1811) vol. 1, 141-42면 인용 및 재인용 : 유리오 세판마, 『환경의 아름다움』 299면; Holms Rolston III, "Aesthetics in the Swamp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3, 4. Summer 2000,* pp. 584-597. 김성진, "갯벌체험의 미학과 환경윤리", 『생태문화와 철학』 한국환경철학회 엮음, 도서출판 금정, 2007. 2., 304-328, 314면.

작지로 변경 불가능한 곳, 더럽고 악취 나며 흡혈성 해충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를 지배한 발전과 개발 논리는 '쓸모없는 습지'를 '쓸모 있는 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시켰으며, 특히 불도저 같은 장비가 등장한 이후로는 늪이나 갯벌들의 매립과 개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1900년 이후 전 세계 습지의 절반이 사라졌다. 이제 습지는 각종 지형들 중 가장 위협받는 지형이 되어 버렸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습지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13)]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자연의 아름다움 체험이 환경미학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환경미학 이전에도 자연의 아름다움 체험은 애초부터 인간의 보편적 자연 체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심미적 활동의 본질적 요소로도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친화적 감수성 및 자연에 대한 미학적 반응의 유전적 조건은 석기시대 원시인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통적인 인간학적 조건인 것이다.

둘째, 아름다운 자연 체험과 혐오스러운 자연 체험 사이의 구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별의 기준이 인간의 생존에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의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는지, 그리고 동일한 구별 기준이 문화권, 인종, 지역을 불문하고 꼭 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여기에서는 일단 제쳐놓겠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성적 체험과 심미적 반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아름답고 숭고하고 매력적인 자연이 있는가 하면 추하고 더럽고 무섭고 혐오스러운 자연도 분

13) Maltby, E., *Waterlogged Wealth : Why Waste the World's Wet Places?*, (Washington D.C.: Earthscan, 1986) 90면.

명히 존재하며, biophilia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biophobia의 대상들도 존재한다는 양면성이 그것이다.

그러면 20세기 환경미학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서도 이러한 자연체험의 양면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미학의 생태학적 전환 이후에도 그 양면성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연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심미적 활동과 반응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다음의 질문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나 부정적 평가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며, 만약 우리가 자연 자체의 생태학적 기능과 자연 변화의 내재적 법칙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임의적 평가와 반응은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의 편견에 불과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면적 평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이러한 양면적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양면적 평가 방식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2. 환경미학과 긍정미학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전통 미학과 20세기 환경미학 사이의 유비점과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전통 미학과 환경미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비적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이 유비적 관계의 중심에는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위치한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인간은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또 자연에 대해서도 동일한 미적 체험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특히 자연 환경의 보전을 정당화하려는 환경윤리학의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자연 환경

을 보전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예술 작품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유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진 하그로브(Eugene C. Hargrove)도 이 점을 강조한다. 한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근거로 해서 그 작품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정당하게 논증될 수 있다면, 같은 논리에 의해 자연 전체 또는 그 한 부분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근거로 정당하게 논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14)]

이러한 유비적 관계는 예술 작품의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인정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즉 미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사람은 그 작품이 표현하는 아름다움 자체를 체험하고 인정할 뿐, 그 작품의 구매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같은 어떤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내재적, intrinsic) 가치이며, 그것 자체 때문에 보전되어 마땅한 가치(a value that ought to be preserved for its own sake)이다.[15)] 따라서 미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현재 상태의 아름다움이며, 그 현재 상태는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훼손될 경우 그 본래 상태로 복원시켜져야 하는 그러한 가치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도구적 가치가 아닌 본래적 가치로서 인정되고 보전되어야 한다는 환경미학과 환경윤리학의 실천적 요구는 예술 작품의 보전을 요구하는 전통 미학의 논리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

14) Eugene C. Hargrove, "The Paradox of Humanity : Two views of biodiversity and landscape", In : KeChung Kim & Robert D. Weaver(eds.), *Biodiversity and Landscapes : A Paradox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73-185면. Eugene C. Hargrove,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thics,* Ch. 6, 특히 191-198면. Sven Arntzen, "Natural Beauty, Ethics and Conception of Nature", *Filozofski vestnik. XX* (2/1999-XIVICA Supplement), 291-301. 292면.

15) Sven Arntzen, 상게서 292면.

반면에 자연의 본래적 아름다움에 대한 환경미학의 또 다른 해석은 전통 미학과의 유비를 거부한다. 환경미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기본적으로 비도구적(non-instrumental)이고 본래적(intrinsic)인 가치라고 규정하며, 따라서 이 입장의 정확한 태도는 인간의 기술적 행위가 적용되지 않은 자연, 즉 인간에 의해 변경되거나 조작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자연 본래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을 전제한다. 반면에 전통 미학의 고찰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술적 행위가 만들어 낸 제작물의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자연 본래의 모습이 (특히 인간에 의해) 과도하게 변경될 경우, 그 본래의 아름다움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자연미 보전은 가능한 한 자연 본래의 모습을 보전하거나 복원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자연 본래 모습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환경미학은 "긍정미학"의 입장을 통해서도 전통 미학과 구별된다. 그리고 이 구별은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비해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우월함을 함축한다. 이것은 긍정미학의 다음과 같은 기본 취지에 근거한다.

첫째, 긍정미학은 자연적 존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미학적 판단 기준이며, 따라서 환경미학의 관점에서만 인정된다.

둘째, 인간의 예술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미학과 부정미학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16)

긍정미학(positive aesthetics)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 공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인간에 의해 변경되거나 영향 받지 않은 채로 유지된 자연 고유의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체험에는 긍정적 평가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 부정적 평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16) 유리오 세판마는 "부정미학" 대신 "비판적 미학" 또는 "평가적 미학" 개념을 선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미학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참조: 유리오 세판마, 상게서 238-243면.

것이 긍정미학의 입장이다.[17] 인간에 의해 창조된 예술 작품의 미학적 평가에 있어서는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는가, 또는 작가의 기술적 능력과 표현 기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거기에는 항상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가 적용된다. 인간의 예술적 작품 제작과 창조 행위는 성공할 수도 또 실패할 수도 있음이 원칙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의 제작 의도나 기술 적용이 전제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오직 "긍정미학"의 기준만이 허용될 뿐이며, 부정미학(negative aesthetics)은 오직 인간에 의해 창조된 예술 작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18] 따라서 이것은 예술 작품과의 대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지는 우월성을 입증해 준다. 동시에 긍정미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예술작품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환경윤리의 근본 동기와도 일치한다.[19]

따라서 20세기 환경미학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공적 가공이나 변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부정미학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유리오 세판마도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부정적(negative) 미학" 또는 "비판적(critical) 미학의 대상 영역은 인공적이고 변형된 모든 것"임에 비해서 "손대지 않은 자연의

---

17) 자연미의 '긍정미학'에 대하여 : 유진 하그로브, 상게서 326면; Allen Carson, "Nature and Positive Aesthetics", *Environmental Ethics* 6, (1984), pp 5-34

18) "Furthermore, if, as positive aesthetics claims, beauty is something original to a natural region and nature unaffected by humans has no negative aesthetic characteristics, then the beauty of a natural region makes it a candidate for preservation in a condition in which it is unaffected by humans." ; Sven Arntzen, 상게서 292면.

19) 김성진, "갯벌체험의 미학과 환경윤리", 상게서 310-312면 재구성.

> 경우, 우리의 과제는 . . . 긍정적인 의미에서 왜 자연이 아름다운지를 이해하도록 배우는 것"일 뿐이다.[20]

그렇다면 20세기 환경미학은 자연미 체험의 양면성을 극복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자연은 단지 아름답기만 할 뿐, 추하거나 더럽거나 혐오스럽다는 부정적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인가? 환경미학의 이와 같은 이론적 개념화는 우리의 실제 자연체험을 정확히 반영하고 또 설명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미학 이론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체험 방식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그토록 혐오스럽던 늪이나 갯벌의 진흙탕을 환경미학과 긍정미학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아름답다고 할 수 있으며 직접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을 것인가?

III. 환경미학 의식전환의 선구적 사례들

이제 우리는 이론적 개념화가 아닌 실제 예증 사례를 찾아보자. 즉 20세기 미학의 생태학적 전환,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한 긍정미학(positive aesthetics), 우리의 자연미 체험에서는 아름답다는 체험만이 가능할 뿐, 추하다거나 혐오스럽다는 평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그 대표적 사례로서 먼저 꼽혀야만 하는 경우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환경윤리학의 선구자들에게서 찾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는 자연의 가장 추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습지에 대한 그들의 전혀 다른 평가이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자연과 혐오스러운 자연을 구별하는 이분법 원칙이 이미 허물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 바로 늪과 갯벌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실로 놀라운 변화이다. 또 늪과 갯벌

---

20) 유리오 세판마, 상게서 238, 239면.

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묘사는 환경문학의 장르에서도 선구적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1. Henry David Thoreau : 늪은 숲의 지성소

먼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경우를 보자. 수기 형식으로 씌어진 그의 『월든』(Walden)은 19세기 중반 1854년에 처음 출간된 것으로서 미국의 nature writing 전통이 자랑하는 대표적 작품에 속한다. 그러나 이 저작의 환경문학적, 환경윤리적 및 환경미학적 가치와 의미와 영향력은 20세기 환경론적 전환 이후 더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그 이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1845년부터 1847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 인근의 외딴 숲 속 월든 호숫가에서 혼자 고독과 명상과 글쓰기를 즐기면서 자연에 파묻혀 생활한 자신의 실험적 삶의 체험을 그는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의 전편을 통해 그는 자신이 체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로 전하면서, 그는 또한 숲 속 호숫가에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예찬한다.

>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다."21)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그의 문화적 세계관을 염두에 둔다면, 숲 속 호숫가의 원시적인 오두막집에서의 삶을 "신과 천국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삶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찬사는 없지 않겠는가? 비록 그것이 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임을 감안한다 해도 그렇다. 그러나 숲 속 어딘가에 있는 늪에 대한 그의 찬사는 더더욱 강렬한 종교적 비유법을 동원하고 있다.

---

21)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개정판, (강승영 옮김, 이레, 2001) 5면.

> "휴식과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면 나는 숲의 가장 어둡고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곳으로, 그리고 가장 통과하기 어려우며, 도시인들에게는 가장 음침한 곳인 늪지로 찾아간다. 늪지는 내가 찾아 드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며 그야말로 지성소(至聖所, sanctum sanctorum)이다. 거기에는 바로 자연의 골수가 채워져 있어 그 힘이 솟아나는 곳이다."[22)]

늪에 관한 한 그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즉 일반적 통념을 따른다면 늪은 (위에서도 되풀이된 바 있듯이) 더럽고 음침하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늪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도 극단적인 종교적 비유법을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의 통념과 대비시키고 있지 않은가? "도시인들에게는 가장 음침한" 장소인 늪이 그에게는 오히려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며 그야말로 지성소"라고 그는 단언한다. 더 나아가서 늪이야말로 "자연의 골수"(the marrow of nature)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래서 자연의 운행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힘과 에너지의 발원지도 늪이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늪은 더 이상 쓸모없고 혐오스러운 시궁창이 아니며, 간척과 개발을 통해 다른 용도로 변형되어만 할 불모지도 아니다. 만약 전체로서의 자연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바로 늪이라는 생각을 소로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 "I enter the swamp as a sacred place, a sanctum sanctorum. There is the strength, the marrow of nature."

늪에 대한 소로우의 이러한 평가는 자연에 대한 자신의 미학적 체험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연에 대한 그의 환경 윤리적 태도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늪에 대한 깊은 생태학적 이해가

---

22) Henry David Thoreau, "*Walking*"(1862). In; The Writings of Henry David Thoreau, vol. 5. (New York, AMS, 1968), 228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숲도, 그리고 숲 속에 있는 늪도 모두 자연이 만들어 낸 것들로서 자연 전체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며, 그래서 당연히 보전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자는 산과 들과 나무와 꽃들이 아름다운 바로 그 만큼 늪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소로우 자신이 보기에 늪은 그 어떤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자연이며 지고(至高)의 가치인 것이다.

2. Aldo Leopold : 대지윤리와 환경미학

동일한 저작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환경문학으로서도 전혀 손색없는 감동적 필치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또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배려와 책임을 호소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한 경우를 든다면 단연코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의 『모래땅의 사계』(A Sand County Almanac)를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1949년 처음 출간된 이 저작은 그의 "대지윤리"(The Land Ethic) 사상과 함께 그 이후 전개된 환경윤리학과 환경미학의 주요 탐구 주제로 발전했다. 원래 산림학자로 출발하였으며 사냥터의 숲과 동물 생태계의 보전에 평생의 노력을 기울인 그에게 자연 생태계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전체(holism)로 이해되었으며, 바로 이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 그의 "대지"(land) 개념이다. 그의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보전되어야 하는 대상도 바로 이 "대지"이며, 여기에는 생명체들 외에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명체들도 함께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의 환경윤리는 생태계중심주의로 분류된다. 대지윤리의 철학적 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의 말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확인된다.

> "어떤 것이 생명공동체의 온전성과 안전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함에 이바지할 때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바지할 때 그

것은 옳지 않다." (A thing is right when it tends to preserve the integrity, stability, and beauty of biotic community. It is wrong when it tends otherwise.)[23)]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대지 개념은 생명공동체를, 또는 자연 생태계 전체를 지칭한다. 그리고 보전되어야 할 대상을 그는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전성과 아름다움의 세 가지로 규정한다. 말하자면 그의 대지윤리는 환경윤리적 의도와 환경미학적 동기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포괄한다. 자연 생태계의 온전성, 그 기능의 유용성,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는 생태계 자체의 아름다움을 분리시키지 않는 그의 태도는 다음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만약 그 개인이 대지에 대한 온정적 이해심을 품고 있다면, 대지가 단순한 떡 광주리 이상의 어떤 존재임을 스스로의 지력에 의해서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대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그리고 자신도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다. . . . 그는 그 전체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유용성도 함께 보게 될 것이며,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용한다.)"

" . . . He will see the beauty as well as the utility of the whole, and know that the two cannot be separated. We love (and make intelligent use of) what we have learned to understand"[24)]

그러면 이러한 대지 또는 생태계에는 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러

---

23) Aldo Leopold, *A Sand County Almanac and Sketches Here and The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262.

24) *The River of the Mother of God and other Essays by Aldo Leopold,* ed. Susan L. Flader and J. Baird Callicott, (Madison, WI : Univ. of Wisconsin Press, 1991), pp. 336-7, p. 337. 재인용 :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ed. Joy A. Palme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1) p. 174.

운 것은 없다는 것일까? 늪에 대한 레오폴드의 미학적 평가는 어떠한가?

생태계(ecosystem)는 많은 부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상호적 연관체계이며 동시에 복잡하고 거대한 순환체계이다. 크게 보아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와 생명체들의 순환체계이다.[25] 만약 늪이나 갯벌 같은 습지들 역시 자연 생태계의 온전성(integrity)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전체 자연의 순환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면 늪과 갯벌도 당연히 전체 자연의 아름다운 구성원이다. 늪이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자연 생태계의 전체적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은 『모래땅의 사계』가 담고 있는 환경 미학과 환경 윤리의 근본 사상에 속한다. 늪은 야생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아무도 원치 않는 늪을 누가 인공적으로 일부러 만들려 했겠는가? 오히려 하루 빨리 형지변경 하여 없애려하지 않았는가?) 늪은 결코 불모지도 아니며 더러운 시궁창도 아니다. 오히려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처이고 보금자리이며 안식처이고 도피처이다. 늪은 자연의 전체적 순환 과정의 한가운데에서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생태계 순환체계 전체를 그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늪의 역사는 지구 생태계의 유구한 역사를 동반해 왔으며 그 역사적 길이와 시간적 깊이를 같이한다. 이러한 늪의 생태학적 의미와 그 본질을 (어리석은)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알고 (또는 오히려 모르고) 있었는가? 그에 비하면 저 옛날 시신세(始新世, Eocene) 이래로 해마다 먼 거리를 날아와 늪에서 서식처를 찾아드는 두루미야말로 늪에 대하여 얼마나 지혜로운가? [26]

---

25) G. Tyler Miller, Jr, *Essentials of Ecology*, 3rd ed., (Brooks/Cole, Thomson Learning, 2005), p. 59 이하

26) "늪지의 애가" : 『모래땅의 사계』 알도 레오폴드 저, 윤여창/이상원 옮김, 푸른숲, 1999, 117-125면.

3. Holmes Rolston III의 늪의 미학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교수이며 "환경윤리학의 아버지"로[27] 통하는 홈즈 롤스턴 3세(Holmes Rolston III) 역시 환경미학과 환경윤리학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어떤 것의 내재적 또는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인정되는 한, 그것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의무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28] 자연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는 미학적 관점에서도 또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경우 환경 보전의 윤리적 의무와 당위성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그는 늪의 아름다움을 고찰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발표된 "늪지에서의 미적 체험"(Aesthetics in the Swamps)도 그것이 꼭 환경문학의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늪의 미학을 학술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늪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설득하고 정당화를 시도한다.[29] 그 역시 늪에 대한 오래된 통념이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인정한다. 고인 물은 나쁜(썩은) 물이며, 흐르는 물은 좋은 물이라는 생각, '오염됨'(pollution)을 가리키는 그리스 어 miasma 는 원래 늪이나 시궁창에서 피어오르는 유독성 공기를 뜻했으며, '말라리아'(malaria)는 '나쁜 공기'(이태리어 mala aria)의 뜻으로서 습지 근처에 살면서 그곳의 나쁜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라는 의미로부터 유래했다는 것 등만 보아도 늪에 대한 편견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임을 말해준다.[30]

---

27)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ed. Joy A. Palme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1) p. 260.

28) " . . . he holds that intrinsic value entails duties." :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ed. Joy A. Palme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1) p. 260.

29) Holmes Rolston III, "Aesthetics in the Swamps", in :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3, 4, Summer 2000, 584-597

30) 말라리아가 그런 습지에 알을 까고 번성하는 모기가 옮기는 병원체 때문에 발병한다는 사실은 1890년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 Holmes Rolston III,

1) 늪의 과학

우선 그는 늪의 과학을 펼친다. 늪에 대한 많은 편견의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늪에 대한 무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늪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야말로 늪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늪의 생태학적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현장 체험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육지면적의 6%는 습지이다. 한대지방에서는 11%에 달한다.[31] 습지들은 크기, 형태, 종류에 있어 (소규모 물구덩이나 연못으로부터 수천 ha에 달하는 담수 또는 염수 습지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늪지대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 특히 산소와 각종 영양소가 유입되는 곳에서는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산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습지야말로 자연 서식처 형태들 중 가장 비옥하며 생산성이 높은 지형에 속한다. 밀 경작지의 평균 생산성에 비해 8배나 높은 식물 생산력이 확인된다.[32] 심지어는 온도가 낮으며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훨씬 부족한 한대지방의 습지대에서도 생명체들의 번성과 다양함은 놀라울 정도이다. 늪을 위시한 각종 습지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과제이며 동시에 미학적 체험을 위한 도전의 장소가 되고 있다.

습지들은 지구의 유구한 역사가 만들어 낸 지형 창조의 원형에 속한다. 그 역사적 시간의 길이는 인간 생존역사의 길이를 훨씬 넘어선다. 물의 존재는 지구를 다른 천체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지구 표면의 2/3는 물로 덮여있다. 지구 어디에서건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물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 점에서 습지들

상게서 585면.

31) Mitsch, W. J./Gosselink, J. G., *Wetlands,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3) 4면.

32) Niering, W. A., *The Life of the Marsh: The North American Wetlands* (New York McGraw-Hill, 1966) 162-99면; Maltby, E., 상게서 9면

이야말로 물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곳이다. 다른 지형들에 비해 습지가 식물들의 성장에 특히 유리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비밀은 바로 그 풍부한 수분이다. 만약 쌀농사를 위한 논들도 인공적 습지의 형태로서 함께 계산에 넣는다면, 습지는 인류의 절반을 먹여 살린다.

늪이나 수렁에 잠긴 물체들은 지속적으로 썩어가지만, 때로는 영구 보존의 효과도 가져온다. 물과 진흙탕 속에 잠겨 산소 공급이 단절된 경우, 썩음은 지연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 등 텐 껍질에서 얻어지며 가죽 무두질에 주로 쓰이는) 탠닌산(tannic acid)이 풍부한 경우 물속의 동물 시체는 영구 보존된다. 1950년 덴마크의 한 수렁(bog)에서는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있으며 수염도 남아 있을 만큼 잘 보존된 2000년 전 인간의 시체가 발견되었다.[33] 유럽 전역의 수렁들에서 발견된 이런 시체들은 한 때 2000여개까지 보고된 바도 있다.[34]

늪이나 수렁 바닥의 토탄층은 홍적세(洪績世, Pleistocene)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태고시의 식물들로 형성된 것이며, 태고시의 물질들을 영구보존함으로써 과거로의 여행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타임캡슐이다. 호수, 수렁, 늪 등이 유달리 많은 핀란드의 습지들은 8000년 이상의 나이를 가진 것들이다.[35] 따라서 그곳의 토탄층들은 8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부패(썩음) 과정들을 보존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그 토탄층 안에 보존되어 있는 꽃가루들의 화석은 지난 8000년 동안 이 늪지에서 번성했던 생명체들의 기록이다. 그런가 하면 습지대에서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많은 식물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태고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36]

---

33) Coles, B./Coles, J., *People of the Wetlands: Bogs, Bodies and Lake-Dwellers* (London: Thames and Hudson, 1989) 180-84면

34) Glob, P. V., *The Bog People: Iron Age Man Preserved.*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1969).

35) Ruuhijarvi, R., “The Finnish mire types and their regional distribution” In: Gore, A. J. P., (ed.), 상게서 48면.

2) 늪의 아름다운 식구들

늪의 아름다움은 늪을 서식처로 삼고 살아가는 각종 동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층 더 고조된다. 이런 이유에서 롤스턴 교수는 늪과 그 주변의 다양한 동식물들을 종류별로 열거하고 소개한다.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생물학을 전공했던 그는 전문가다운 안목을 가지고 늪의 생태계를 학술적으로 설명하지만, 그의 본래 의도는 늪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생명가치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물새들 : 예를 들어 4천만 년 전부터 늪지를 찾아오는 두루미와 왜가리(crane)
- 화려한 아름다움과 우아함, 독창성과 특이한 개성을 뽐내는 꽃과 풀들 : 붓꽃(blue flag, Iris versicolor L.), 유럽의 노란 붓꽃(yellow iris, Iris pseudacorus L.), 서양 수련(yellow pond lily, Nuphar), 개불알꽃 속(屬)의 난초(lady slipper orchid, Cypripedium), 미나리아재비(buttercup, Ranuculus), 갈대(reed grass, Phragmites communis Trin.), 줄풀(wild rice, Zizania aquatica L.), 그리고 오리나무(alder), 오리나무 유제화서(葇제花序, alder catkin), 덩굴월귤(cranberry, Vaccinium), 히스(heather, Calluna), . . . (great bullrush, Scirpus validus Vahl), 황새풀(cotton grass, Eriophorum -사초속, sedge), 사초속(sedge, Carex), 부들(cattail, Typha), 좀개구리밥(duckweed, Lemna), 천남성류(jack-in-the-pulpit, Arisaema atrorubens [Ait.] Blume), 앉은 부채(skunk cabbage, Symplocarpus foetidus [L.] Nutt.)
-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 끈끈이주걱(sundew, Drosera), 낭상엽 식물(pitcher plant, Sarracenia purpurea L.), 파리외옥풀

36) 예를 들면 고생대의 데번기(Devonian) 이래로 존속하는 식물로서 고비(fern, 양치류, 羊齒類), 미주 지역의 cinnamon fern(Osmunda cinnamomea L.), royal fern(O. regalis L.), interrupted fern(O. Claytoniana L.), 그리고 석송(石松, club moss, Lycopodium), 속새(horsetail, Equisetum), 진흙속새(scouring rush) 등과 각종 이끼들과 물이끼(Sphagnum)가 있다.

(Venus flytrap, Dionaea muscipula Ellis), 통발속 식충식물 (bladderwort)

습지의 동물들 역시 매우 다양하다.

- 연체동물(mollusks) : 달팽이(snail), 홍합(mussel) 등
- 갑각류(crustaceans) : 잠자리(dragonfly), 나비(butterfly), 물벼룩 (water flea, Daphnia), 물매아미(whirligig beetle), 각종 모기들 (mosquitoes)
- 척추동물(vertebrates) : 물고기와 개구리
- 양서류(amphibians)/파충류(reptiles) : 불도마뱀, 도롱뇽(salamander), 자라(turtle)
- 기타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 물새들 : 수달(otter), 사향쥐 (mustrat), 밍크(mink), 여우(fox), 살쾡이(bobcat), 스라소니 (lynx), 청둥오리(mallard), 고방오리(pintail), 넓적부리(shoveler), ____ (bufflehead), 상오리(teal), 지빠귀/찌르레기(blackbird), 큰물닭/검둥오리(coot), 논병아리(grebe), 가마우지(cormorant), 펠리칸(pelican), 비오리/톱니오리(merganser), 쇠물닭(gallinule), ____(jacana), 매(marsh hawk), 왜가리/백로(crane, heron, blue heron), 아비(loon, 아비속 물새들)[37]

4. 감성적 갯벌 체험의 미학 :「나는 갯벌을 겪는다」(백용해)

아름다운 자연과 혐오스러운 자연의 이분법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례,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논함에 있어서는 긍정미학의 원칙만이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 과거에는 혐오 대상이었던 자연이 아름답고 즐거운 체험의 장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갯벌이다.

요즈음 소위 생태관광은 크게 성업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갯벌관광은 그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휴

---

37) Holmes Rolston III, "Aesthetics in the Swamps" 상게서

전선 근처의 갯벌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전하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방송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갯벌 체험을 인기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철새가 날아드는 갯벌의 진풍경, 갯벌에 서식하는 각종 생명체들, 갯벌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행사와 여가 놀이와 머드팩 마사지 또는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 문화 등이 그 주요 내용들이다. 무릎까지 빠져드는 진흙탕 속을 걸어가면서 지긋지긋한 혐오감을 토로했던 19세기 생물학자 린네와 달리, 오늘날 갯벌 체험은 특별한 즐거움의 체험이며 갯벌 특유의 아름다움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질퍽질퍽하고 미끄러운 감탕 흙을 맨발로 걸으면서, 그것을 몸과 얼굴에 바르거나 그 속에 미끄러지면서 온 몸으로 그 특이한 미끌미끌한 느낌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야 말로 자신의 오감과 몸 전체로, 그리고 마음으로 갯벌을 체험하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학적 체험의 인간' 즉 호모 에스테티쿠스(homo aestheticus)의 원래 모습이 아닌가? 1998년부터 시작된 '보령머드축제'는 정부로부터 올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 축제이벤트 협회(IFEA)'가 수여하는 "2007 피너클 어워드"의 주요 상들을 독차지하는 세계적 축제로 각광받고 있다.[38)]

갯벌 체험의 미학적 측면은 예를 들어 백용해의 『나는 갯벌을 겪는다』(한림미디어 2004)에서도 생생하게 살아난다. 저자는 원래 게 전문가로서 생물학자이고 생태학자이다. 이 책에서도 그는 갯벌에 대한 전문가다운 과학적 설명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갯벌의 종류와 생성 과정과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특히 갯벌에 살고 있는 각종 동식물과 생명체들에 대해서 사진 자료와 도면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많은 것을 알려 준다.[39)] 그는 또한 이 많은 생명

38) 일간지 보도, 예를 들면 동아일보 제26813호 기사 참조.
39)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갯벌에 살고 있음을 알고 새삼 놀라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전문적인 갯벌 연구서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학곤, 『갯벌환경과 생물』, 아카데미 서적, 2002; 허철희 『새만금 : 갯벌에 기댄

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인간은 이 생명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 갯벌 생태계의 조화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실제로 이 책의 일차적 집필 목적은 갯벌 생태계에 대한 연구서이고 과학적 관찰 보고서이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는 독자는 곧 알게 된다. 즉 그가 설명하는 이 모든 생명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교하게 갯벌 생태환경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또 살기 위해서 서로 맺게 되는 관계들도 아름답다. 이 모든 관계들이 갯벌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서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유지시킨다는 것도 그의 설명을 통해 분명해 진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설명을 읽고 듣고 보면서 갯벌과 갯벌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스러운지를 알게 된다. 말하자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갯벌이 확인시켜주는 가치는 포괄적이다. 즉 생명 가치이며 윤리적 가치이면서 동시에 미학적 가치이고 생태학적 가치이며 경제학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추하고 혐오스럽다는 고정관념 대신 천연 갯벌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내지는 긍정적 미체험의 근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갯벌과 갯벌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 경이감과 친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별한 유대감과 연대의식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들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가? 나도 그렇듯이, 그들 각자도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의 조건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갯벌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체들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갯벌 생태계에 의존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40]

삶』, 창조문화 2003 등도 참조할 만하다.

40) 김성진, “갯벌체험의 미학과 환경윤리”, 상게서 317-318면 재구성.

IV. 썩음의 미학 : 자연미 체험의 생태학적 전환과 그 종착점

환경미학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의식전환, 가치관 변화, 태도변화에 대한 요구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0세기 환경미학은 혐오스러운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하나의 도전이다. 이 요구를 나는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늪의 미학, 갯벌의 미학은 늪과 갯벌의 아름다움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어떻게 나는 인정할 수 있는가? 논문 한 편을 읽고 이론적으로 설득됨으로써 가능한가? 아니면 내가 직접 그 현장을 겪어봄으로써, 직접적인 나의 감성적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가? 그러나 현장체험이 반드시 나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확인시켜 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곳들이 나에게는 여전히 더럽고 음침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는 일단 환경미학의 이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늪의 미학, 갯벌의 미학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본다. 그것은 실은 썩음의 미학으로까지 나아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썩음의 미학을 인정한다는 것은 환경미학의 생태학적 전환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식 전환에 있어서도 더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단계에서 비로소 환경미학이 요구하는 생태학적 전환과 긍정미학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1. 늪의 과학과 썩음의 과학

생태학은 미생물체들을 분해자(分解者, decomposer)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모든 부패현상의 주역을 담당하는 박테리아, 원생동물,

효소(酵素, enzyme), 효모(酵母, yeast), 바이러스, 곰팡이, 균류(菌類, fungus), 조류(藻類, alga) 등이 포함된다. 분해자들의 역할은 사실은 각종 물질을 분해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재창조의 역군이다. 만약 분해자가 없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모든 것은 폐기물과 쓰레기와 시체가 된 후 그대로 죽음과 적막과 정지 상태에 빠져버릴 뿐, 재창조나 재생은 없을 것이다. 재창조 없이는 모든 생명 현상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분해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창조를 위한 환경이다. 따라서 분해자들의 생존 환경을 훼손시키거나 파괴시킴은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썩음은 물질의 변형이며, 에너지의 획득과 순환이며, 유기질과 무기질의 순환이며, 생명과 죽음의 순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순환적 변화체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균형을 이룰 때, 자연 생태계는 온전성(integrity)을 유지하면서 전체로서의 기능도 이루어 내면서 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해 나간다.[41]

습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최악의 무질서와 불결함과 혼잡스러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뒤에 숨어있는 놀랄 만큼 완벽한 질서, 그리고 다른 자연계 어디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없는 생태학적 적응(adapted fit, 적응적 적합성/adapted fitness)이다. 이 질서는 습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체계화된 질서이다. 이 질서는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습지 유기체들의 다양한 상호관계들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질서이다. 즉 한편으로는 서로 겨루고 견제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삶(생존)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보완하는 관계들을 통해서도 형성되는 질서이다. 그리고 이런 상호관계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41) C. F. Norton, Microbiology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Reading, Massachusetts 1981), 157면 이하.

이 질서는 체계성을 가진다. 즉 각 유기체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상호 적응의 체계가 이 질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조화로운 질서야말로 늪과 갯벌이 아름다울 수 있는 핵심 조건이 아닌가?

습지 생태계는 매우 비옥하며 풍부한 생산력의 체계이다. 그것은 수 천, 수 만 가지 유기체들을 생성시키고 그들의 생명과 생존과 번영을 지원하고 공존의 파트너로 자기 안에 포괄함으로써 그 생태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체계(system)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공적 적응 관계들을 만들어 내고 부적응(misfits)을 제거해 가면서 완벽하게 기능하는 연결망(matrix)의 체계이며,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생성시키는 근원적 힘(energy)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적 질서는 그 구성원들의 풍요로움, 아름다움, 온전성, 변화의 역동성을 실현시키면서 그 질서 자체의 역동적 창조력을 발휘한다.

습지의 식물들은 수분, 영양분, 산소 등의 함유량이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습지 토양에 잘 적응하는 종류들이다. 늪이나 수렁이나 연못들은 야생 자연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것이며, 주변의 다른 생명 공동체들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유기체들이 고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 공생의 체계이다. 이러한 관계(연결)망의 특수성 때문에 늪이나 수렁이나 천연 못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습지들은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그들 자체의 온전성(integrity)을 키우고 지켜온 것이다.

습지는 우리에게 죽음을, 즉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습지는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죽음의 기록을, 그리고 주검이 남긴 흔적과 증거물들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습지대에는 동물의 사체들이 지속적으로 가라앉는다. 늪지나 연못

바닥의 연하고 검은 개흙(ooze)은 분해된 각종 동식물들의 사체가 침니(沈泥, silt)와[42] 함께 섞여 오랜 세월을 두고 바닥에 쌓이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한 줌의 개흙 안에 들어 있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수는 지구상의 총 인구수를 능가할 수도 있다. 토탄도 역시 죽음의 기록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습지에서도 죽음과 썩음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습지들이야말로 썩음의 깊이가 오랜 시간의 역사를 두고 쌓여온 곳이다. 한대지방 영구 동토층의 습지들은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에 얼어붙어서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추위 속에서도 생명은 씨앗과 싹눈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땅 속의 뿌리와 알과 번데기들은 눈과 얼음에 덮여 보호받으면서 생명을 지킨다. 굶주림 속에서도 동물들은 참을성 있게 겨울을 견뎌낸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의 약속은 지켜지기 때문이다. 1973년 10월의 폭풍우가 만들어 낸 두꺼운 얼음 층이 카나다 북쪽 다도해 지역의 습지들을 덮었던 그 해 겨울 동안 그 곳 사향소(muskox)들의 75%가 사망했다. 그러나 수 백 만년 동안 툰드라 습지에 적응해 온 사향소들은 북미주 빙하기도 이겨낸 대표적인 대형 동물로서 지금도 건재 한다.

2. 썩음의 미학과 생명의 아름다움

짧은 시간대를 놓고 볼 때, 모든 생명체는 패자가 되며,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긴 시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은 끊어지지 않으며, 죽음과 썩음의 파괴력 안에서도 불사조처럼 영원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늪, 수렁, 감탕 흙, 천연 못 등 각종 습지들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 해내고 또 해내서 살아남는 생명력과 생존(survival) :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며 생명의 가장 심층적인 아름다움이다.[43]

---

42) 침니(沈泥, silt) : 모래보다 곱고 진흙보다 거친 침적토.

우리는 흔히 자연 생태계를 하나의 거대한 순환체계로 이해한다. 물질순환, 에너지 순환, 또는 생명체들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바로 이 순환작용이 자연을 유지해 나가는 본질적 특성이다. 그리고 이 순환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미생물체들의 분해 작용이다. 생태학에서도 분해자로 분류되는 이 미생물체들의 분해 작용 없이는 생태계의 순환 체계는 불가능하며 자연계 지속가능성은 곧 붕괴된다. 우리가 늪이나 갯벌 같은 습지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야말로 실은 이 분해 작용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정지된다면 일어나게 될 재난과 재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왜 소로우는 늪을 자연의 "지성소"이며 "골수"라고 불렀는가? 왜 혐오스러웠던 늪이나 갯벌이 요즈음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과학이 가르쳐주는 늪과 갯벌의 본질은 썩음의 장소이다. 그 생태학적 가치를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썩음의 가치를 말해야 한다. 썩음은 분해자들의 분해활동이며, 썩음과 분해는 recycling의 기초이며 조건이다. 재생, 재탄생, 되먹임, 되물림, recycling 없이 생태계는 존재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생태학적 이해는 재래식 언어 사용의 관례에도 수정을 요구한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늪과 갯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건강한 썩음', '창조적 썩음', '좋은 썩음', '아름다운 썩음'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정한 의미에서 '나쁜 썩음'이나 '혐오스러운 썩음'은 오히려 인간이 저지르는 썩음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늪과 갯벌의 생태학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훼손하고 인공적으로 변형시켜 버림으로써 자연의 생태학적 순환을 정지시켜 버리는 사태야말로 '나쁜' 썩음이며 '파괴적' 썩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3) "Survival - making it through, living on and on - is the last word, life's deepest beauty." H. Rolston III, 상게논문 597면).

자연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항상 재확인하게 된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의 보전가치이다. 즉 보전되어야 할 자연의 가치를 전제한다. 자연 환경이 보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도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보전가치의 핵심은 생명가치이다. 생명가치는 윤리적 가치이면서 동시에 미학적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생태학의 교훈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논의된 미적 체험의 대 전환이며 자연미 체험의 양면성이 극복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즉 가장 혐오스러운 자연의 대표적 사례였던 늪이 아름다움 체험의 장소로 바뀐 것이다. 몇몇 선구자들에 뒤이어 이제 우리도 이 전환에 적극 참여하고 또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도전에 적극 응해야 하지 않는가? 생명이 아름다운 만큼 썩음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는가?

환경미학의 생태학적 전환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개념체계에 대한 도전이다. '썩음'과 '부패함'은 일상언어에서도 왕왕 도덕적 타락의 대명사로 사용되지 않는가?[44] 그런가하면 썩음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름다움 개념과 연결시키는 언어 사용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썩음' 개념의 이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적어도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생태학적 기능과 생명가치를 하나의 체계적 전체로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자연 체험의 양면성과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가치관의 극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자연에 대해서는 선과 악, 미와 추, 가치와 반가치 등을 대립시키는 개념구도를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초월주의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 도전이

44) '썩은 정치', '부패 공무원' 등

철학의 도전이 되고 있다. 썩음의 미학적 가치를 말하는 환경문학, 그리고 썩음 현상과 생명가치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성을 가르치는 생태학에 뒤이어 이제는 썩음의 철학이 우리의 환경 철학과 생태철학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한다.

참고문헌

김성진, “생태주의와 환경철학”, 『환경정책포럼 2006』, 환경부 2006. 12., 85-108.

김성진, “갯벌체험의 미학과 환경윤리”, 『생태문화와 철학』 한국환경철학회 엮음, 도서출판 금정, 2007. 2.

동아일보 제26813호

박용해, 『나는 갯벌을 겪는다』, 한림미디어, 2004.

이학곤, 『갯벌환경과 생물』, 아카데미 서적, 2002.

허철희, 『새만금 : 갯벌에 기댄 삶』, 창조문화, 2003.

Arntzen, S., “Natural Beauty, Ethics and Conception of Nature”, *Filozofski vestnik. XX*(2/1999-XIVICA Supplement), 291-301.

Carson, A., “Nature and Positive Aesthetics”, *Environmental Ethics 6*, (1984)

Coles, B./Coles, J., *People of the Wetlands: Bogs, Bodies and Lake-Dwellers* (London: Thames and Hudson, 1989)

Dubos, R., “Mere survival is not enough for Man”, *Life* (Asia edition), Vol. 49, No. 4, Aug. 17, 1970

Glob, P. V., *The Bog People: Iron Age Man Preserved.*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1969).

Gore, A. J. P.(ed.), *Ecosystems of the World, vol. 4*, A Mires: Swamp, Bog, Fen, and Moor, Regional Studies. (Amsterdam: Elsevier Scientific, 1983)

Hargrove, E. C., “The Paradox of Humanity : Two views of biodiversity and landscape”, In : KeChung Kim & Robert D. Weaver(eds.), *Biodiversity and Landscapes : A Paradox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Hargrove, E. C.,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thics,*

Leopold, A., *A Sand County Almanac and Sketches Here and The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모래땅의 사계』 알도 레오폴드 저, 윤여창/이상원 옮김, 푸른숲, 1999,
Leopold, A., "Wherefore Wildlife Ecology?" In : *The River of the Mother of God and other Essays by Aldo Leopold,* ed. Susan L. Flader and J. Baird Callicott, (Madison, WI : Univ. of Wisconsin Press, 1991)
Carolus Linnaeus, *Lachesis Lapponica, or a Tour in Lapland* (1732), transl. by J. E. Smith, 2 vols, (London: White and Cochrane, 1811) vol. 1,
Maltby, E., *Waterlogged Wealth : Why Waste the World's Wet Places?*, (Washington D.C.: Earthscan, 1986)
Miller, G. T. Jr., *Essentials of Ecology, 3rd ed.,* (Brooks/Cole, Thomson Learning, 2005),
Mitsch, W. J./Gosselink, J. G., *Wetlands,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3)
Niering, W. A., *The Life of the Marsh: The North American Wetlands* (New York McGraw-Hill, 1966)
Norton, C. F., *Microbiology*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Reading, Massachusetts 1981,
Orians, G. H. and Heerwagen, J. H., "Evolved Responses to Landscapes" In : Barkow, J. H./Cosmides, L./Tooby, J.(ed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almer, J. A.(ed.),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1)
Rolston, H. III, "Ethics and the Environment : Types of Environmental Ethics", in : Emily Baker and Michael

Richardson, eds., *Ethics Applied*, edition 2, ch. 11, (New York: Simon & Shuster, 1999)

Rolston, H. III, "Aesthetics in the Swamp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3, 4. Summer 2000, pp. 584-597

Rolston, H. III, "Environmental Ethics", in :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ilosophy*, 2nd ed. ed., N. Bunnin and E. P. Tsui-James, Ch. 18. (Oxford : Blackwell Publisching, 2003, pp. 517-530)

Ruuhijarvi, R., "The Finnish mire types and their regional distribution" In: Gore, A. J. P., (ed.), *Ecosystems of the World*, vol. 4, A Mires: Swamp, Bog, Fen, and Moor, Regional Studies. (Amsterdam: Elsevier Scientific, 1983)

유리오 세판마, 『환경의 아름다움』(김문환 옮김, 신구문화사 2000)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개정판, (강승영 옮김, 이레, 2001)

Thoreau, H. D., "Walking"(1862). In; *The Writings of Henry David Thoreau, vol. 5*. (New York, AMS, 1968),

Ulrich, R. S., "Biophilia, Biophobia, and Natural Landscapes" In : Kellert, S. R./Wilson, E. O.(edds.), *The Biophilia Hypothesis* (Washington DC : Island Press, 1993)

논문 접수: 11월 25일, 게재승인: 12월 4일

【Abstract】

Environmental Aesthetics and the Aesthetics of Decay
- Can the double-faced appreciation of natural beauty be overcome? -

Kim, Sung-Jin
(Hallym University)

Environmental aesthetics deserves to be taken as separate area of aesthetics because it takes into consideration neither the art works nor any artificial presentation of nature or natural beings. It takes to its theme only what men experience, feel, and aesthetically appreciate in their direct encounter with (the beauty of) nature.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normal sense of aesthetics (whether philosophy of art or philosophy of criticism) because of the principle of the so-called "positive aesthetics" which demands that, so far as it concerns the beauty of nature, only positive aesthetics is applicable and negative or critical aesthetics should not be allowed. Does it mean that nature could be appreciated only as beautiful or pleasurable and not as ugly or unpleasant?

These sort of position challenge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of nature so far as they contradict our general and long lasted view of nature that includes apparent bifurcation, and we have material evidences enough of the double-faced way of aesthetical appreciation of nature out of the long history of human encounter with nature. We know that there have been in our judgement on nature always the beautiful nature and the ugly nature, the pleasant nature and the unpleasant nature. - Do we have reasons enough to justify this challenge? Can we overcome the double-faced way of

aesthetical appreciation of nature?

Regarding these questions I propose to investigate following three subjects : 1) theories and concepts for justifying the principle of positive aesthetics; 2) some cases of exemplification for overcoming the double-faced aesthetical appreciation of the swamps and mud-flats; 3) the ecological relevance in justifying the positive aesthetics of the swamps and mud-flats.

This investigation will lead us then automatically to the aesthetics of decay as the final theme of environmental aesthetics, so far as the process of decay is the very unavoidable constituent in the whole ecological process of recycling and re-creation of life that makes the swamps and mud-flats as ecologically valuable and aesthetically beautiful.

Key words : environmental aesthetics, ecological turn, the beauty of nature, positive aesthetics, life value, aesthetics of swamps, aesthetics of decay, H. D. Thoreau, A. Leopold, H. Rolston III, Y.-H. Park,

필자소개(가나다 순)

김성진(金聖震)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대철학, 중세철학, 환경철학이 주 연구분야이다. 독일 DAAD지원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연구교수, 서양고전철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Der Widerspruch und das Urteil in Platons Parmenides」, 「형이상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적 접근」,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역서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있고, 논문으로는 "고대의 생태론적 인간학과 철학", "플라톤의 기술철학과 국가론", "진화론적 국가이해의 철학적 의미", "철학적 인간학의 생태학적 과제", "생태학적 위기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학적 자유의지론", "대중설득기법의 도덕성 논쟁과 그 작용영향사", "탈레스 철학의 작용영향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테오리아"등이 있다.